

# “김사복처럼...우리도 5월 진실 알리는 운전사죠”

## 광주시 운영 '5·18택시운전사' 7명 인터뷰

5·18민주묘지·옛 도청 등 운행  
영화 나온 노래 들려주면 좋아해  
‘광주 민간 외교관’ 자부심 뿌듯

“광주를 찾은 타 지역 승객에게 5·18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일부터 송정역, 광주광역시청, 옛 전남도청, 금남로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5·18택시’가 화제다.

‘5·18택시’는 영화 ‘택시운전사’ 흥행과 함께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 탐방객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5·18택시운전사’ 차량들이다. 택시를 타고 운전사의 해설을 들으며 국립5·18민주묘지, 옛 광주MBC사옥, 옛 적십자병원, 금남로(옛 도청-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5·18역사 현장과 영화 속 장소를 돌아보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당초 5대 택시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광주와 5·18에 대한 해설이 가능한 개인택시 기사 2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7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25일 현재 ‘5·18택시운전사’를 이용한 승객은 총51팀 115명으로 서울, 춘천, 인천, 용인,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들 택시운전사는 ‘5·18 택시’의 주인공이자 영화 ‘택시운전사’의 김사복처럼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인공은 한진수(57)·송형섭(56)·정봉섭(53)·김일수(55)·김진웅(57)·조성수(66)·남영관(56) 씨 등 7명이다.

이들에게는 1980년 5월 당시 직·간접적으로 겪거나 목격한 참담한 기억이 있다.

당시에도 택시운전사였던 조성수 씨는 “택시운전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 대인동에서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때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다”며 “위르겐 힌츠펜터가 5·18을 세계에 알린 첫 외신 기자였다면, 5월 21일 이후에는 곳곳에서 많은 외신기자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남영관 씨는 시민군에 가입해 활



‘5·18택시’를 운전하는 7명의 주인공들.



영화 ‘택시운전사’ 한 장면.

동하다 롯데백화점 앞쪽에서 군인에게 붙잡혔다. 친구들과 함께 시청(현 구시청 음식문화의 거리) 지하실로 끌려가 갇은 고문을 당하다가 상무대 영장(현 5·18 자유공원)으로 옮겨져 풀려났다. 그는 “그때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광주에 머물고 있던 한진수 씨는 “5월 18일 이전인 16일과 17일에 이미 무장한 계엄군들이 군복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송형섭 씨는 승객들에게 영화에 나왔던 노래 ‘단발머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5·18민주묘지로 이동할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기도 한다. 송 씨는 “승객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니 5·18에 대해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번 5·

18택시 운행으로 광주의 진실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택시 경력 27년인 정봉섭 씨는 매일 ‘광주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선다고 한다. 외지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이들이 바로 택시 기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5·18택시운전사’를 하면서 광주를 알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고 밝혔다.

김일수 씨는 기억에 남는 승객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할머니들이 만든 주먹밥을 먹고 나서 ‘영화 속 송강호가 5·18현장을 버려두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들른 국숫집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알 것 같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웅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와 5월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80년 5월은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이런 계기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5·18택시운전사’는 9월 3일까지 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걸리는 2개 코스를 1일 14회 무료 운행한다. 희망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전화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670-7483, 7485.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만해문학상 최종심 대상작 후보

‘죽음을 넘어 시대의...’ 등 7편 올라

2017년 제32회 만해문학상 ‘최종심 대상작’에 황석영·이재의·전용호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광주 5월 민주항쟁의 기록(사진)’ 등 모두 7편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된 상이다.

최종 본상 수상작은 9월 중에 열린 최종심에서 결정된다. 최종심 대상작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은희경 소설집 ‘중국어 톨렛’, 정이현 소설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 황정은 소설집 ‘아무도 아닌’, 김정환 시집 ‘내 몸에 내려앉은 지명(地名)’, 허수경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황석영·이재의·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광주 5월 민주항쟁의 기록’, 민중덕 ‘노동자의 어머니 : 이소선 평전’.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달 11일 김영근 초청 바이올린 콘서트



김영근 초청 바이올린 콘서트가 오는 9월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해설이 있는 다이나믹의 밤’이라는 주제로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 모차르트의 ‘론도’,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 사타의 ‘자파테아도’, 베토벤의 ‘소나타 5번’ 등 세계적인 거장의 곡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근은 미국 샌디에이고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미국 메사추세츠 우스터 뮤직 스쿨 교수로 재직했으며 피아니스트 이종은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관람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10-9846-2212.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5·18은 한국 대표 민주화운동... 관련 프로그램 상품화 필요”

### ‘5·18택시’ 탑승 美 블룸필드대 정경택 부총장

전국에서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 탐방객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18 택시운전사’에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블룸필드대학의 정경택 부총장이 지난 26일 가족과 탑승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출신인 정 부총장은 대학교 3학년 때 5·18을 겪었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5·18 소식을 듣고 광주에 내려올 생각을 했었다”며 “그러나 광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차단돼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갔었다”고 말했다. 이번 ‘5·18택시’ 탑승은 출장 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정부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다.

26일 오전 8시, 광천터미널에서 가족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그는 택시를 타고 운전사의 해설을 들었다. 택시가 광주광역

시청·5·18 자유공원, 국립 5·18 민주묘지, 옛 광주MBC사옥, 옛 적십자병원, 금남로(옛 도청~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 등 5·18 역사 현장을 운행하는 동안 영화 속 장소와 비교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한국에 오기 전 뉴욕에서 학교 직원들과 함께 ‘택시운전사’ 영화를 봤어요. 직원들 모두 ‘한국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던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울더라구요”

그 또한 5·18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영화를 감명깊게 봤다. 그러던 차에 광주에서 운영중인 ‘5·18 택시운전사’를 알게 됐다.

“5·18 택시운전사’를 비롯한 5·18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상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홍콩에서는 우수혁명이 있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은



지난 26일 ‘5·18택시’에 탑승한 정경택 부총장 가족. (광주문화재단 제공)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영화 흥행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꾸준히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유·스퀘어청년작가 조은솔 개인전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은솔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한 조은솔은 지난해 ‘Role playing’ 전시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인 ‘관점·Point of view’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31일 미리 개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문의 010-4775-0338.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